

‘낭만 가객’ 최백호 “낭만은 그저 낭만...매순간이 최고의 찰나”

데뷔 46주년...후배 뮤지션 참여한 기획 앨범 ‘찰나’ 발매 내년에 ‘3대 코’ 개코·지코와 함께 힙합 앨범 발매 계획도

최근 젊은 음악팬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는 ‘3대 코’가 있다.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30·ZICO·우지호), 힙합 듀오 ‘다이나믹 듀오’ 개코(41·Gaeko·김윤성) 그리고 ‘낭만 가객’ 가수 최백호(72).

최백호는 음악가에게 ‘꾸준함’이 얼마나 큰 덕목인지를 계속 환기시키고 있다. 개코·지코가 존중심을 표하는 것도, 최근 발매한 기획 앨범 ‘찰나(刹那)’에 후배 가수들이 대거 힘을 실은 것도 그간 성실한 작업에 대한 헌사다.

1976년 데뷔곡 ‘내 마음 갈 곳을 잃어’가 히트하며 주목 받았지만 최백호는 이후 20년 동안 엄밀히 말해 톱가수 반열에 있었던 뮤지션은 아니었다. ‘입영전야’, ‘뛰어’, ‘영일만 친구’ 같은 노래 등은 중년 층에서 소소하게 인기를 누렸다. 그러다 1995년 발표한 ‘낭만에 대하여’가 역주행하며 전국구 스타가 됐다.

이 곡은 발매 당시 반향을 얻지 못했으나, 김수현 작가의 KBS 2TV 주말극 ‘목욕탕집 남자들’(1995~1996)에서 목욕탕집 장남 ‘김봉수’ 역을 맡았던 배우 장용이 부른 뒤 대박이 났다. 행운은 우연이지만 지속하는 건 당사자의 필연적인 노력이다. 이후 최백호는 중장년을 대표하는 가수가 됐고, 지금까지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장수하는 가수가 됐다. 그렇게 찰나가 쌓여 역사가 됐다.

최백호는 최근 뉴시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낭만은 그저 낭만일뿐 매일 매순간들이 최고의 찰나”라고 말했다.

이번 앨범 ‘찰나’는 그 매순간을 기억하는 노래들을 담았다. 콘텐츠기업 CJ ENM이 신인 작곡가들을 육성·발굴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오픈 뮤직’과 콘텐츠 크리에이터 그룹 ‘피엔피(PNP)’ 작곡가들이 협업

했다. 오픈 뮤직 1기의 헨(Hen)이 프로듀싱을 맡았다. 최백호는 2018년부터 오픈 뮤직 대멘토로도 참여하고 있다.

앨범은 청춘의 순간부터 노년의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품고 있는 삶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나누는 메시지다. 최백호가 일흔을 조금 넘기고 만난 앨범에 일곱 개의 곡과 하나의 이야기가 담겼다.

오케스트레이션의 웅장한 편곡이 돋보이는 타이틀곡 ‘찰나’는 온전히 최백호의 목소리의 노래지만 다른 트랙들은 다양한 연령대의 여러 장르에 몸 담은 후배들이 힘을 실었다.

최백호 본인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래퍼 겸 프로듀서 지코(ZICO)의 목소리로 담은 ‘찰나의 순간’, 포크 록 장르로 R&B 가수 콜드(Colde)가 후반부 피쳐링으로 힘을 실은 ‘덧질’, 30대에 흔히 겪는 감정 속 흔들리는 모습을 훗날 개화할 꽃에 비유한 또 하나의 타이틀곡으로 R&B 가수 조지미가 피쳐링한 EDM 팝 ‘개화’가 실렸다.

또 불혹의 변화에 대해 노래한 곡으로 래퍼 타이거JK가 힘을 보탠 ‘변화’, 나를 떠나가는 모든 것들에게 뜨거운 안녕을 고하는 노래로 가수 정승환이 피쳐링한 ‘나를 떠나가는 것들’도 포함됐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칸에 남아 있는 그리움을 노래한 ‘그 사람’엔 선배 가수인 정미조가 함께 했다. 마지막 트랙은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최백호가 유일하게 작사·작곡에 참여한 스포셜곡 ‘책’이다.

이번 앨범 작업 과정에서 “전 그냥 누드도 델처럼 서 있거만 했다”는 최백호는 “젊은 작가분들이 새로운 모습이라고 칭찬했다”고 뿌듯해했다. “이번 작업은 아주 즐거운 작업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수업이었습니다. 모두 젊은 뮤지션들이 바라본 현실심 넘은

젊은 가수의 모습이 지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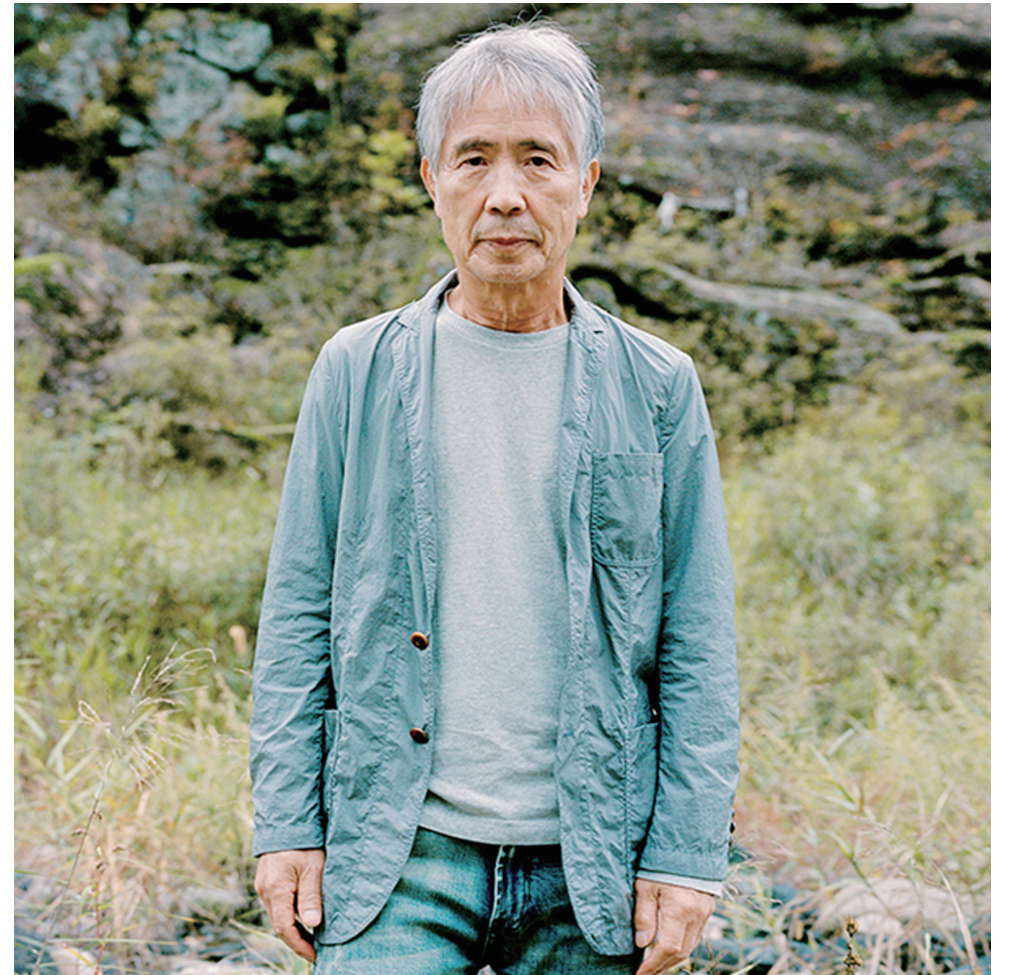
최백호의 도전은 끝나지 않는다. 개코, 지코와 함께 내년에 힙합 앨범을 발매하기 위한 계획도 있다. 지코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토크 예능 ‘5분만 : 기브 미 어 미닛(Give me a minute)’ 시즌 2 4화에 ‘대한민국 3대 코’ 드디어 만났다’라는 주제로 세 뮤지션이 대화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이 조합은 tvN 예능 ‘놀라운 토요일’에서 대한민국 ‘3대 코’로 처음 언급되며 화제를 모았다. 최백호는 “후배코들에게 좋은 곡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어떤 형태의 곡이든 적응해보려 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최백호는 일찌감치 젊은 뮤지션들과 협업하거나 독립음악가에게 애정을 가져왔다. 톱가수 아이유의 ‘아이야 사랑 건자’를 피쳐링하는 동시에 자신이 소장하고 있던 한국음악발전소가 운영했던 뮤지션스튜디오를 통해 인디 음악가들의 삶도 살폈다. 그래서 ‘오픈 뮤직’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CJ ENM에 대해 “꾸준히 변함없이 지원해주는 진정성이 지켜 포기할 수도 있는 많은 젊은 예술인들에게 힘이 돼 준다”고 화답했다.

“저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우리의 열악한 음악환경에서 싸이아 방탄소년단(BTS)이 나온다는 건 기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우선 대중음악을 충분히 공감·이해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다른 분야의 예술도 마찬가지로 걸니다만 거리를 만들어줘야 하죠. 그 행위를 벌일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최백호는 지자체가 실적 위주로 하는 형식적이면서 겉핥기 식의 기획들은 대중음악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도 내뱉었다. 그는 “방탄소년단 이후로 생각해 야 합니다. 코로나19는 많은 훌륭한 뮤지션들이 음악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이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백호는 최근 인디 뮤지션들의 성지로 젊은 음악 마니아들에게 지지를 받고 네이



버 문화재단의 인디 지원 플랫폼 ‘네이버 온스테이지’에 출연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낭만에 대하여’ ‘책’을 들려줬다. 그는 “소문으로만 들던 낯선 형태의 음악세계에 실제 들어와보니 적응이 잘 안됐지만 그래도 곡 전체를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 또한 좋은 공부였다”고 긍정했다.

“어서 내놓는데 여러 걱정들도 있다”고 조심스러워했다.

올해 데뷔 46주년을 맞은 최백호는 바이닐(LP), 카세트, CD, 디지털 음원 등 다양한 음악 저장 매체를 모두 경험했다. 최근 국내외 젊은 청자들 사이에서 LP붐이 일면서 최백호의 기존 LP들도 인기다.

“(음악 저장매체의) 변화 과정은 기술적인 발전은 가져왔지만 감성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퇴보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LP붐이 일어나고 있지요. 이런 현상은 어쩌면 ‘인간의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지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AD)에게 노래를 부르게 할 수는 없지요.”

고우림, 아내 김연아에 극존칭...김준현 “그분께 그래야”



KBS 2TV ‘불후의 명곡’ 방송

크로스오버 그룹 ‘포레스트라’ 멤버 고우림이 아내인 ‘피겨 여왕’ 김연아에게 극존칭을 써 웃음을 안겼다.

지난 26일 방송된 KBS 2TV 예능 ‘불후의 명곡’에 고우림이 김연아와 신혼생활에 대해 언급하자 출연자들은 귀를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다.

개그맨 김준현이 “김연아씨도 포레스트라의 기록, 무패신화를 다 알고 있나”라고 묻자, 고우림은 “포레스트라의 음악과 활동에 응원을 해주셔서, 해주신다고 하니 좀 그런데”라며 머뭇거렸다. 이에 김준현은 “맛조. 늘 아내분께 극존칭을 해야죠. 그럼요. 그분께서 말씀하시길”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막내 고우림의 결혼소식을 듣고 어땠냐’는 물음에 멤버들은 “결혼 소식보다 연애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랐다. 휴대폰에 두 손이 포개진 사진을 보고 놀라서 미친0이라고 했다”며 당시 놀랐던 심경을 전했다. 또 다른 멤버는 “진짜 가족 결혼식 하는 느낌이라 감정이 묘했다”고 했다.

고우림이 결혼 후 달라진 점에 대해서 “웬지 모를 유부남 냄새가 났었다. 그때 그렇게 느껴졌는데 체력도 회복되니까 편찮아 지더라. 결혼준비가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오늘 아내에게 아침밥을 차려주고 나왔’라는 질문에 고우림은 “저도 오늘 리허설 때문에 빨리 나왔고 아내 분도 아침 일찍 일이 있어 같이 출근하느라 식사를 못했다. 서로 고생했으니 야식을 먹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출연자들은 “좋고, 달달하다” “일단 뭘 같이 먹네요”라면서 부러워했다.

뉴시스

이효리, ‘뜨거운 눈물’ 왜?... ‘캐나다 체크인’



이효리가 임양 보낸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해 캐나다로 향했다.

25일 tvN ‘캐나다 체크인’ 예고영상이 유튜브 채널에 공개됐다.

이효리가 임시보호하던 유기견을 해외 입양 보낸 후 새로운 가족들과 살고 있는 강아지들을 만나기 위해 떠났다.

이효리는 남자친구 만나러 가듯 설레는 마음으로 지인과 함께 개들이 입양된 가정을 방문한다. 자신을 알아보고 달려오는 강아지들을 품에 안으며 기뻐하고 환하게 웃는다. 또 강아지를 입양해준 가족들과 포옹하며 “이 방송의 팬이 될 것 같다. 내가 죽는 날까지 돌려볼 거 같다”며 뜨거운 눈물도 쏟는다.

‘캐나다 체크인’은 12월 17일 오후 10시 40분 tvN에서 첫방송된다.

“너를 만났다” 이재욱·고윤정 운명의 소용돌이 예고...‘환혼’

다음달 10일 오후 9시10분 tvN 첫 방송

이재욱과 고윤정이 운명적으로 만난다. 27일 tvN ‘환혼: 빛과 그림자’(연출 박준화, 극본 홍정은·홍미란) 제작진이 공개한 세 번째 티저 영상은 장욱(이재욱 분)이 낙수의 얼굴을 한 기억 잃은 여인(고윤정 분)과 운명적인 인연을 그리며 시작된다.

박진(유준상 분)은 장욱에게 “네 안에서 얼음을 깨내면 너는 죽는다”며 따끔한 충고와 연민의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욱은 죽었지만, 얼음들의 힘으로 살아났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슴에 정인의 칼을 박힌 채 상처를 안고 사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 장욱의 앞에 한 여인이 등장하면서 두 사람의 운명에 커다란 소용돌이가 예고된다. 여인의 등장과 함께 장욱이 정인과 나눠 가진

사랑의 증표, 푸른 옥이 반응했다. 그녀는 장욱 안의 얼음들을 본 듯 “그걸 깨내면 편해지나”라고 물으며 그의 가슴을 어루만진다.

또 장욱과 정인의 추억이 깃든 단향곡 나무 아래서 그녀가 눈물을 글썽였다. 여기에 “절대 서로가 서로를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라는 진호경(박은혜 분)의 내레이션은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호기심이 더해진다. 여기에 위기의 귀공자 서울(황민현 분)의 사연도 흥미를 고조시킨다.

여전히 혈통에 고통받고 있는 서울이 누군가를 예뻐하게 바라보며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해서요”라고 말해 상대가 누군지 궁금증을 유발했다.

한편 ‘환혼: 빛과 그림자’는 다음달 10일 오후 9시10분 첫 방송된다.



이 드라마는 죽은 곳에서 살아 돌아온 장욱과 3년이 지난 뒤 새롭게 펼쳐지는 술사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놀면 뭐하니’ 달력·다이어리 출시

개그맨 유재석 등 ‘놀면 뭐하니?’ 멤버들의 활약을 담은 내년 달력과 다이어리가 출시된다.

26일 MBC TV 예능 ‘놀면 뭐하니?’ 제작진은 “유재석, 정준하, 하하, 신봉선, 박진주, 이이경, 이미주 7명 멤버들의 활약을 담은 2023년 달력과 스페셜 패키지의 예약판매가 시작된다”고 알렸다. 해당 상품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시작되며, 판매 수익의 금은 전액 기부된다.

이와 함께 ‘놀면 뭐하니?’ 2023년 달력 이미지도 공개됐다. 멤버들이 올해 방송을 통해 보였던 개성 넘치는 캐릭터들이 달력 속에 담겨 눈길을 끈다.

박진주, 이이경이 전학생으로 합류해 7인 체제를 완성한 ‘선생 윙클’부터 사람이 필요한



곳이려면 어디든지 가는 ‘놀면 뭐하니?’, 웃음 노역에 처한 노비들이 펼치는 ‘노비대전’, 예측불가 재미를 안긴 ‘몽치면 퇴근’, 여기에 프로젝트 그룹 WSG워너비의 반가운 모습이 추억을 떠올리게 만든다.

스페셜 패키지는 2023년 달력뿐 아니라 다이어리, 굿즈(자석, 보드마카, 랜덤 리무버블 스티커 1종, 리무버블 스티커 3종)로 구성됐다.